

신심 제일의 도시 배움의 열기도 ‘짱!’

부산 지역 사찰 및 교육단체 ‘가을 학기’ 일제 개강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9월, 불자들의 신행관을 정립하고 불교적 인생관을 설정해줄 교육의 도량이 부산에서 대거 열린다.

부산불교인재개발원(원장 이육태, 051-853-8539)은 제1기 입문자 수행학과 및 불교전문강당 신입생을 모집한다. 제1기 수행학교는 처음 불교를 접하는 초심자들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9월 2일 개강해 6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전반과 오후 7시 야간반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강사진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종 스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 대원불교대학(학장 송석구, 051-583-7811)은 2008년 후반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입

문 6개월 과정, 대학2년 과정, 대학원 2년 과정, 법사 3년 과정으로 불교인문과 및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명상학과 강의를 개설했다. 강의시간은 주간 오후 2시, 야간 오후 7시부터 각각 2시간 40분간 진행된다. 수료 후에는 각 분야 전문 자격증이 부여된다.

수미산 아미타도량 원호센터(주 지 공파, 051-611-9308)는 <대승기신론 해동소> 제8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년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고려대장경판 해동소를 교재로 중생이 부처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의 과정을 강의한다. 법사 공파 스님은 <원효전집 6권> <전수경의 원본경전> 등 다수의 저서를 편찬하고 수준 높은 강의로 정평이 나왔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051-253-8687)에서는 초심자들

위한 불교기본교육(4개월)을 마련한다. 9월 2일 개강해 총 4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주·야간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참선 입문과 실참수행을 아우르는 참선수행학교에서도 제2기 초심자를 위한 참선강좌(3개월)와 참선강좌 심화과정인 <수심결> 강좌(2개월)를 마련한다. 7월 23일 성황리에 마친 선원장 오경 스님의 <화엄경>강의는 보다 깊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재단장해 <화엄경 II> 강의로 개설된다.

연산동 해원정사(주지 원허, 051-866-7771)에서는 제17기 해원불교대학을 개강한다.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개월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통도사해운대포교원 부처님마을(주지 호법, 051-704-0332)은 제 14기 불교대학신입생을 모집한다.



부산 불교계는 다양한 강좌를 마련해 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6개월 과정의 기초반에서는 불교기초교리 및 불교예절, 불교신행방법, 성자순례 및 현장학습 위주로 진행된다. 경전반은 불교방송 목요일회를 진행하는 호법 스님이 지도법사로 출강한다.

당리동 관음사주지 지현, 051-

701-5655) 사회복지법인 늘기쁨마을 환희불교복지대학에서는 제20기 호스피스 과정과 제5기 카운슬링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2일 개강해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수료 후 특전이 주어진다.

박지현 기자 hdbp@hanmail.net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누구든 와서 근심 걱정 놓으세요”

“남구의 절, 나아가 부산 시민의 절로서 문화적 휴식공간이 앞으로 동명불원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비룡산 동명불원(주지 정산) <사진>은 8월 15일 백중을 맞아 부산시 남구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흥겨운 잔치를 열었다. 지난해 2월 정산 스님이 주지로 취임한 후 생긴 큰 변화 중 하나다. 모창가수 주영필의 유쾌한 공연과 전문 무용단의 아름다운 무대, 어르신들의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 등 지역축제 못지않은 큰 호응 속에 마쳤다. 단순한 대중공연만이 아니라 즐거운 축제의 장을 만든 정산 스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불자들이 집에 계신 내 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 기집을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명불원은 울타리가 없는 절이다. 2700평의 넓은 대지에 동남아시아 건축양식으로 지은 17채 건물과 국내 최대 규모 27톤 범종으로 백과사전에 오를 만큼 특색 있고 유명한 사찰이기도 하다. 이런 특색 때문에 인근 학교



달려다.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 뜻을 가르쳐 줘서 이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비’이고 곧 스님들의 목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앞으로 크고 작은 후원은 꾸준히 이어가려는 한편, 자원봉사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도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신도들이 봉사하고 싶어 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싶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동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체계적인 봉사

얼음골 케이블카 환경파괴 논란 ‘가열’

총 4단계 중 공원계획 변경승인 절차만 남아

경남 밀양시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밀양시와 환경단체 및 사찰 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월 17일 경상남도와 밀양시,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주)한국화이바는 120억 원을 들여 가지산 도립공원 내 밀양시 구연마을~진장골 계곡 남쪽 정상 1.7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경상남도, 밀양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한국화이바는 5월 이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신청하고 조건부로 협의를 마쳤고, 경상남도에도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했다. 현재 공원계획 변경승인과 사도사업 허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해 2002년 사업

이 무산된 선례를 바탕으로 경남과 울산지역 환경 및 시민 단체,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와 밀양 표충사(주지 정운) 등 불교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지산 도립공원 얼음골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불교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 예정지는 녹지자연도 등급이 8, 9급인데다 최근 멸종 위기종인 쇠의 분비물이 발견됐는데도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밀양시는 정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가 ‘케이

블카 공사로 얼음골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관계 전문가 4명으로부터 ‘케이블카 공사는 문화재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받아 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의 경우 얼음골에서 559m 떨어져 있으며, 케이블카 상부에서 산 정상까지 진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면 오히려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밀양시 얼음골 일원은 통도사, 석남사, 표충사, 내원사 등 유명 사찰과 역세군락지 등이 위치한 이른바 ‘영남알프스’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축전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현 기자 hdbp@hanmail.net

“이순간 닦고 실천하라”

정광스님, 반야원·미타선원서 초청법회



봉암사 선원장 정광 스님이 반야원과 미타선원에서 불자들을 만나 “지금 이 순간부터 청정하게 닦을 것”을 법문했다.

“실천하고 수행하는 삶’에 대한 정광 스님의 특별 법문이 부산의 2곳 사찰에서 하루 동안 릴레이로 진행됐다.

8월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범어사 해운대 포교원 반야원(주지 목종)과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에서 봉암사 선원장 정광 스님의 초청 법회가 열렸다.

정광 스님은 “불교는 깨달음과 자비의 종교로, 법성을 깨달아 남에게 베푸는 것을 실천 수행해야 한

다”며 “내일부터 혹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불교를 이룰거 가는 주인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암사는 조계종 종립선원으로 일반인들은 물론 신도들에게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특별선원이다. 정광 스님의 이번 법회는 각각 200여명의 신도들이 모여 성황리에 마쳤다. 박지현 기자

울타리없는 절... 지역명소에서 나눔운동

에서는 소풍이나 세대대회 때 자주 찾는 단골명소가 된 지 오래. 너무 많은 이들이 찾아와 번거로운 법도 한데 정산 스님은 오히려 더 자주 오라며 반긴다. “우리 절은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민과 불자 모두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 지나가다 들러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에는 동명불원 신도회가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옷, 양말, 치약 등 생필품 200kg을 기증했다. 스님은 모두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공을 모두 신도들에게 돌린다. 하지만 신도들의 이런 선행에도 정산 스님의 뜻이

의 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자비를 실천하고 싶지만 물가가 오를수록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진 요즘, 우리 가족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에 감히 도울 엄두가 나지 않는 불자들이 많아졌다. 정산 스님은 “지금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일 뿐 곧 하나씩 해결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며 “지금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고통 없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려울수록 더 많이 베푸는 그 공덕이 나중에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자비와 나눔을 강조했다. 박지현 기자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답달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많고 불경기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저 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혼들어 문앞에서 방해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김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 용실, 목욕탕, 디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귀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점,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있는 구슬을 한 개를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아, 어머니는 아들 형제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고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진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 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다. 구슬로 사갈라 용공에도 있고 여의륜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니, 은나노 처리 까치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